<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인식되어 왔다.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① (가)의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② (나)의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③ (가)의 ‘발을 푸니’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는 심리 상태를, (나)의 ‘앞으로 남은 십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겠군.

④ (가)의 ‘여울물’과 ‘때까치들’에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음을, (나)의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겠군.

⑤ (가)의 ‘이 세상을 앓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는 자연에 동화되려는 태도를, (나)의 ‘물은 물일 뿐’은 경험적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